

濟州島民의 海上活動

— 19世紀의 사례로부터 —

로쿠탄다 유타카(六反田 豊)*

정 광 중 譯**

목 차

- I. 해금정책 하에서의 해상활동
- II. 조난사례에서 보는 해상활동
- III. 출신지의 사칭에서 보이는 「우리」 의식

I. 해금정책 하에서의 해상활동

한반도의 남쪽, 동지나해의 북쪽에 떠 있는 제주도는 예로부터 주변 여러 국가와 여러 도서지역들을 연결하는 해상교통의 요충지로서, 도민들에 의한 해상활동도 활발히 전개되어 왔다.

원래 탐라국이라는 독립된 정치단위를 유지하고 있던 제주도가 명실공히 한반도의 국가권력 하에 놓이게 된 것은 14세기말 이후의 조선왕조 시대의 일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조선왕조는 해금정책(海禁政策)을 취하여 자국민이 타국과 왕래하는 일을 금지시키고 있었다. 특히, 토지가 척박하고 생활조건이 험했던 제주도에서는 도외(島外)로 탈출이나 이주(본국에서는 출륙(出陸)이라 한다)를 도모하는 자가 많았으며, 당시의 조선정부는 도민의 해상활동을 엄하게 관리하며 제한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근해에서의 어로작업이나 허가를 얻어 인근의 도서 지역과 반도부와의 왕래는 물론, 비합법적인 해적행위까지도 포함하여, 도민들의 해상활동은 실로 다방면에서 왕성하게 행해지고 있었다. 또한 그러한 해상활동의 결과로서 배가 표류하거나 난파되어 익사하기도 하고, 또는 도내나 반도부 혹은 타국으로 표류·표착하는 사례

* 큐슈대학(九州大學) 문학부 조교수. 1962년 카고시마현(鹿兒島縣)에서 출생. 큐슈대학 대학원 문학연구과 사학전공 박사과정 수료. 전공은 조선중 근세사. 공편저로서 『半島と列島のくにぐに』(新幹社, 日本: 東京)이 있다.

** 제주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조교수로 재직중. 전공은 농업·농촌지리학.

도 많이 발생하였다.

그런데, 조난지나 표류지로부터 송환된 표류자의 심문내용 등은 제주도민들의 해상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양상을 파악하는 데에 상당히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다행히도 제주도의 경우, 조선시대 말기의 19세기에 한정되고는 있지만, 그와 관련되는 기록들이 일부 남아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濟州啓錄』(한국, 서울대학교 소장, 이하 『啓錄』이라 약술하기로 한다)이다. 이것은 중앙에서 파견되어 제주도를 다스렸던 제주목사가 왕에게 보낸 오늘날의 정부 보고서(狀啓)를 조선왕조 측에서 등사하여 연월일 순으로 정리한 책자이다. 그 내용은 조난·표류관계에 그치지 않고, 매우 다양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으며 제주도 사회연구에 귀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 『啓錄』에 의거하면서, 19세기 제주도민들의 해상활동의 일단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현존하는 『啓錄』은 전 5책으로, 1845~58년(제5책), 1866~72년(제1책), 1881~1884년(제2·3·4책) 동안의 기록이 남아 있지만, 본고에서는 비교적 장기간에 걸친 기록을 집중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5책만을 대상으로 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啓錄』제5책에 게재된 조난관계의 기사를 일람표로 정리한 것으로서, 糟谷政和(1997), 1840·50年代濟州島民の日本·中國·琉球への漂流と送還經路, 茨城大學人文學部紀要コミュニケーション學科論集 2卷이 있지만, 여기에는 아주 부분적이기는 하나 일부의 사례가 빠져 있기도 하고 또한 일부는 착오로 인해, 본고에서 다루는 사례 건수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그리고 제주대학교의 고창석(1997), 19세기 제주인의 표류실태,나 혹은 고창석 외(1997), 『19세기 제주사회 연구』, 일지사(서울) 에서도 『啓錄』전 5책 중 표류관계의 기사를 상세히 분석하고 있다. 아울러 부기해 들 점은 본고의 서술내용이 제주도민 전체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어디까지나 해상활동에 종사하던 도민들의 활동에 대한 일단을 검토하는 데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 주기 바란다.

II. 조난사례에서 보이는 해상활동

『啓錄』 제5책에서 확인할 수 있는 1945년 2월~1958년 10월 사이의 제주도민의 조난사례는 전부 합하여 65건이다. 이 수치를 평균적으로 계산해 보면, 1년에 약 5건 정도의 발생률이라 할 수 있다. 제주도민들의 해상활동은 실제로는 이를 훨씬 초과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설령 관(官)이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조난 그 자체는 의외로 적은 횟수라고 할 수 있다. 시기별로 검토해 보아도 특징적인 경향은 나타나지 않으며, 따라서 계절적인 조건보다는 그때 그때의 기상조건에 크게 좌우되

있던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 같다.

조난상황에 대한 개요를 서술해 보면, 배의 침몰이 15건, 대파 건수가 1건, 표류 건수가 49건으로 나타난다. 배 침몰의 경우는 선원이 전원사망으로 판단되는 사례가 9건, 일부 선원의 구조 사례가 6건으로 전원이 구조된 사례는 나타나지 않는다. 배가 대파한 1건에서는 일부 선원이 구조되었다. 또한 표류한 사례에서는 선원 전원의 행방불명의 사례가 18건, 전원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 사례가 1건, 전원이 생환된 사례가 20건, 일부의 생환 사례가 10건으로 분류된다. 선원전원이 행방불명이 된 사례는 표류하여 송환되지 못했거나, 실제로 배가 침몰하여 익사했거나, 아니면 표류지에서 사망한 것 중 어느 한가지에 속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조난 사례로부터 제주도민들의 어떠한 해상활동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인가. 우선 조난이 언제 어떻게 발생했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불명의 경우를 제외하여 모두가 ① 제주도와 우도, 기타의 연안도서와의 왕래시(32건), ② 제주도내의 왕래시(16건), ③ 제주도와 반도부와의 왕래시(15건)의 세 가지 중 어느 하나에 포함된다. 다음으로, 조난선의 항해 목적은 조어활동(22건), 몰자수송(21건), 상업활동(구체적인 내용은 불명이나, 「행상」이라 기록된 것, 6건), 해초 채취(6건)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여기서 앞의 ①~③과 대응시켜 보면, ①의 경우는 해초 채취(6건), 조어활동(22건), 몰자수송(4건)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②의 경우는 몰자수송이 압도적으로 많다(13건). ③은 상업활동(6건), 몰자수송(4건), 진상(왕에게의 헌상품 즉, 감귤류나 말 등)·상납(2건) 등을 목적으로 한 항해였다. 아울러, ③의 경우 몰자수송은 모두가 미역의 수송이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강화도로 미역을 수송하고 쌀로 교환하여 돌아오는 도중 조난한 사건이 1건, 충청도 은진현 강경포에서 미역을 쌀로 바꾸고 귀환중에 조난한 사례가 1건으로 이들 모두가 상업활동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말하자면, 당시 제주도민들은 우도나 그 외 연안도서의 근해에서 어로활동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또한 도내의 몰자운반 수단으로서도 주로 선박을 활용하고 있었다. 나아가 반도부와의 상업활동(대부분은 도내의 특산품을 식량인 쌀과 교환하는 상행위)도 왕성하여 반도부의 중부지방까지 진출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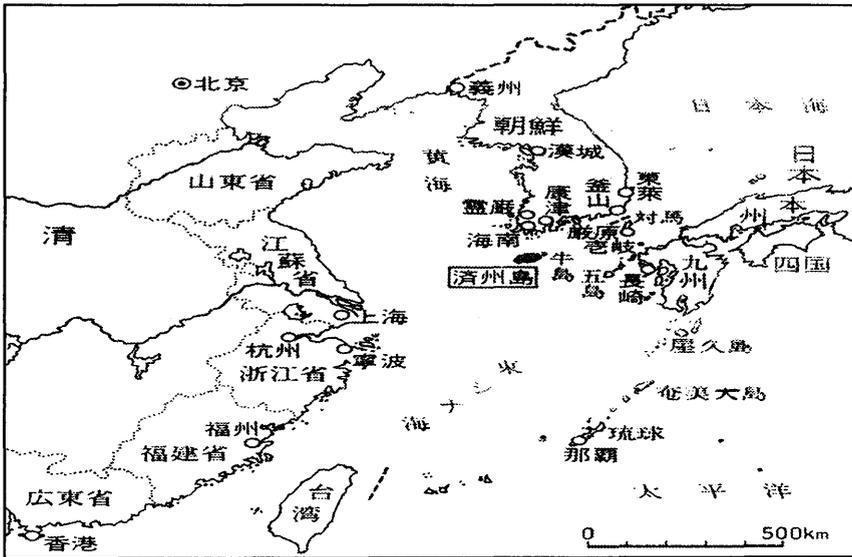
다음으로, 이상과 같은 해상활동의 결과, 불행하게 표류한 사례를 검토해 보면, 도내의 표류(표착)가 3건, 타국으로 표류한 사례가 27건이다. 이를 표착지 별로 구분해 보면, 일본 13건, 중국(청)이 11건, 류큐(琉球)가 3건이다. 일본에의 표착은 음력 1~4월에 나타나며, 중국과 류큐에의 표착은 음력으로 7~9월에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주로 계절풍의 영향에 의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에 표착한 경우는 쓰시마(對馬島)나 고토(五島) 부근에 표착한 경우가 많았다. 중국의 경우는 산둥성 황하강 어귀에 표착한 사례가 1건 있지만, 나머지는 거의 남부 지역에 표착하였으며, 그 중 특히 복건성 지역이 많다. 특히 주목되는 사례는 광둥성의 홍콩 부근까지 표류하다 구조된 사례로서 1건이 나타난다.

그런데, 표류자(표착자)들은 대개의 경우 현지에서 관에 의해 보호되고 취조를 받은 후, 식량과 의복 등을 지급받아 다시 제주도로 송환되었다. 이 때 쓰시마로 표착한 경우는 표착지에서 도주(島主)인 종씨(宗氏)의 성(城)이 있는 이즈하라(嚴原)에 호송된 후, 북부의 사스나(佐須奈)항에서 해협을 건너 부산의 왜관에 도착하여, 동래부→ 좌수영→ 도회관(都會官)→ 제주도라는 경로를 걸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었다. 일본내의 다른 지역에 표착한 경우는 예외없이 표착지로부터 나가사키(長崎)를 걸쳐, 쓰시마로 호송된 다음, 위와 동일한 경로를 밟아 송환되었다.

중국으로 표착한 경우는 표착지에서 북경, 요동지방을 걸쳐 조선의 의주로 입국하여 경기감영→ 도회관→ 제주도라는 경로를 취하였다. 표착지가 류큐의 경우에는 표착지(표착한 섬)에서부터 류큐왕부로 호송된 후에 나하(那覇)항에서 진공선(進貢船)으로 복건성에 건너간 후, 중국의 표착지와 같은 경로를 밟아 송환되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도회관이란 구체적으로는 제주도와 바다를 두고 접하는 전라도 강진현·영암군·해남현을 가리킨다. 이들 3군현은 나열한 순서대로 1년씩 번갈아가며 제주도와 본토 사이의 여러 가지 왕래와 관련되는 사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그림 1> 19세기 제주도민들의 표류 해역

조난발생에서 제주도로 송환되기까지의 기간은 쓰시마의 경우가 4개월 정도이며, 고토 섬(五島)이나 그 주변 도서에서는 일부 사례를 제외하여 9개월~1년 3개월 정도였다. 중국의 경우에는 최단기간은 황하강 어귀의 표착으로 약 7개월이며 최장기간은 타이완에 표착한 사례로 약 3년 반이 소요되었지만, 그 외에는 대개가 1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었다. 그리고 류큐로 표착한 경우에는 1년 2개월~1년 8개월 정도가 소요되었다.

타국으로 표류·표착은 당사자에게 있어서는 전혀 뜻하지 않은 사건이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전술한 것처럼, 길고 긴 시간을 제주도 밖에서 보내면서도 타지나 외국에서 체재하는 기간 동안 많은 이문화를 접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동시에 표착자가 흡수한 이문화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는 귀국 후 많은 섬주민들과 공유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그 과정에 대한 검증이나 추적작업은 흥미있는 과제이기는 하나, 사료적인 제약으로 인해 현시점에서는 접근해 볼 방법이 없다.

Ⅲ. 출신지의 사칭에서 보이는 「우리」 의식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타국에 표착한 제주도민이 귀국후의 사정 조사에서 표착지의 관(官)이 취조시에 자신들의 출신지를 사칭했다고 증언하고 있다는 점이다. 『啓錄』제5책에 관한 한 사칭한 지명들은 앞서 제시했던 강진현·영암군·해남현 중 하나로 거의 고정되고 있다. 그리고 출신지의 사칭에 대한 사실은 표착지에 남겨진 심문기록으로부터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도대체 왜 그들은 제주도 출신이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으면 안되었을까.

이케우치(池內 敏)는 이러한 출신지 사칭을 제주도민의 자아의식의 발로로 보고 있다.¹⁾ 이케우치에 의하면, 제주도민이라는 점을 숨기려는 의식은 타(외)국인이 제주도 주변해역을 위협하고 있었다는 인식에 바탕을 둔 것으로, 이미 그러한 인식은 16세기 이전부터 가지고 있었으며, 17세기 후반 이후에 들어서는 점차 구체화되었다고 한다. 이케우치는 출신지를 사칭한 이유를 설명하는 표착자의 언설 변화에 주목하여, 다음과 같이 4개의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유형 A : 제주도 주변 해역에서 해난사고의 다발상황을 타(외)국인 중에서는 제주도민들이 제주도에 접근하는 타(외)국인을 살해해 버린다고 오해하는 자가 있다. 그

1) 池內 敏, 1995, 近世朝鮮人の對日認識論ノト, 歴史學研究, 678 이하 본문 중에서 서술하는 池内の 견해는 모두 이 논문에 의존한 것이다.

때문에, 타(외)국인이 제주도민들과 조우하게 되면, 즉시 살해해 버린다는 설이 이전부터 있었다.

유형 a : 왜인(일본인)이 제주도민들과 만나게 되면 즉시 죽여 버린다는 설이 이전부터 있었다.

유형 b : 제주도민들이 일본에 표류(착)한 때에는 모두가 죽음에 직면한다고 과거로부터 들려 왔다.

유형 c : 제주라고 하는 두 글자를 숨기고 싶었기 때문이다. 표류민은 제주 출신이라고 칭하는 것을 아주 싫어하고 있었다.

이들 중 유형 A는 유형 a, b, c를 모두 포함시킬 수 있는 큰 부류로서, 여기에서 제주도민이 타자로부터 살해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는 의식(타자에 대한 제주도민들의 독자적인 자아의식)이 인정된다고 이케우치는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제주도민들의 이국·이역으로의 표착은 일본의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고, 그런 이유로 유형 A는 유형 a와 b에서 볼 수 있듯이, 「일본(인)」으로 수렴되어(류큐에서도 사칭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에 가서는 왜 자신들이 사칭해야 하는지 조차도 잊어버리는 유형 c로 변화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케우치의 설에는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선, 제주도민들의 표착 사례는 일본의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사실은 조사의 부족에서 나타나는 기본적인 잘못이다. 『啓錄』내의 기록이 명백하게 제시해 주고 있듯이, 제주도민들의 출신지 사칭은 일본 표착시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여기에서 「자아(自我)」라는 용어나 개념을 사용하는 것은 논의의 시비를 가리기 이전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제주대학교 고창석 교수도 이 문제와 관련하여 제주도에 전해지는 류큐국 왕자의 살해 전설에 주목하고 있다.²⁾ 류큐국 왕자의 살해에 대한 전설을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즉, 1611년에 류큐국 왕자일행이 제주도에 표착했는데, 왕자일행이 가지고 있었던 재물에 눈이 어두워 당시의 제주목사가 모두를 살해했다는 내용이다. 19세기 중엽 이원조(李源祚)가 집필한 『탐라지초본(耽羅誌草本)』에는 이 사건 때문에, 제주도민들은 타국으로 표류(착)했을 때 자신들의 출신지를 밝히지 않고 강진·해남 등으로 사칭하는 것이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전설에 나타나는 류큐국 왕자의 살해사건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어, 제주도민들이 출신지를 사칭하는 일이 시작되었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 류큐국 왕자가 실제로 살해당했는지에 대한 진위 여부는 차치해 두더라도, 그런 전설이 바탕이 된 사

2) 고창석, 전계 1). 이하, 본문 중에서 서술하는 고창석 교수의 견해는 모두 이 논문에 의존한 것이다.)

건이 그 당시 실제로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다.³⁾ 그러나 이케우치도 서술하고 있는 것처럼, 이미 이 사건이 일어나기 이전부터 제주도민들은 자신의 출신지를 숨기려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오히려, 이케우치가 제시한 유형 A에 나타나 있듯이, 제주도 부근에서의 해난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상황을 배경으로 타(외)국인으로부터 두려움이 원인이 되었기 때문에 제주도 출신이라는 사실을 숨기려는 의식이 짝트기 시작하였고, 그것이 제주도에서 실제로 일어난 어떤 표류자의 살해사건을 계기로 해서, 예를 들면 류큐국 왕자살해 전설 등이 만들어지게 되었으며, 나아가서는 그러한 사실에 조장되어 결국 자신들의 출신지를 사칭하는 습관이 일반화되었다고 보는 것이 보다 사실에 가까운 것은 아닐까 생각된다.

이와 같이 출신지 사칭에 대해 배후에 존재하는 제주도민들의 의식을 스스로가 타자와 구별하는 일종의 「우리」의식으로 규정하는 것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제주도민들이 그러한 반도부 사람들과 다른 의식을 가지게 된 것은 말하자면, 제주도의 지정학적인 위치와 도민들의 활발한 해상활동에 의한 결과로서, 결국 타국(인)과 접촉했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었다고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가지 의문으로 남는 것은 출신지의 사칭에 대한 습관과 그 배후에 내재하는 제주도민들의 독자적인 「우리」의식이라는 것이 과연 도민들 전체가 공유하고 있었던 것인가에 대한 점이다. 또한, 그러한 사실여부가 제주도민들의 일부이건 전체이건 간에 자발적인 행위 혹은 자발적인 의식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점이다. 말을 바꾸면, 그러한 사실과 관련되는 배후에는 국가권력이 어떠한 형태로든 개입되어 있을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것인지, 필자로서는 다소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아닐 수 없다. 이들에 대한 불투명한 점을 해명하는 일이야말로, 아주 중요한 일이라 하겠지만 의존할 수 있는 사료가 거의 없다는 사실이 못내 아쉬울 따름이다. 어쨌든, 본고에서는 그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단순히 문제제기에 그치고 있음을 용서하기 바라는 마음이다.

본 소고는 일본 고금서원(古今書院)에서 발행하는 지리학 관련 잡지 『地理』(1998, 제43권 제5호, pp.44~49.)에 실린 것이다. 원문 전체를 번역하였으나, 문맥의 흐름을 고려하여 장별 번호는 역자가 임의로 부여한 것임을 밝혀 둔다.

3) 류큐국(琉球國) 왕자살해의 전설에 대해서는 松原孝俊, 1990, 朝鮮における傳説生成のメカニズムについて 主に琉球王子漂着譚を中心として, 朝鮮學報, 137輯을 참조하기 바란다.

1995년 5월호 『地理』에서는 특히 「濟州島世界」라는 제목하에 특집을 싣고 있는데, 여기에는 본고를 포함하여 8편의 소논문이 수록되어 있다. 이들 중 3편은 한국인(고창석 : 제주대학교 사학과 교수, 고광민 : 제주대학교 박물관 학예연구원) 혹은 재일 한국인(양성종 : 재일 향토사학자)이 집필한 것이며, 나머지의 5편은 일본인 학자들이 집필한 것이다. 그리고 일본인 집필자들은 문화인류학, 역사학 및 지리학을 주전공으로 하는 신진학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끝으로, 미력하나마 제주도 지역사회를 연구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